



조계종 동계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식 조계종 총무원은 3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의 모태범과 이상화, 쇼트트랙의 이정수 등 동계올림픽 불자선수수와 임원 34명을 초청, 환영식을 개최했다. 조계종은 이날 직접 제작한 금메달을 선수 및 임원들에게 전달하며 불자체육인으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또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관민정양을 비롯해 전국에서 추천된 불자선수 1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계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불자운동단을 파견했으며 이후 불자선수들을 초청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법정 스님을 예도하는 뜻에서 식전 일정이 취소되는 등 간소화됐다. 참석자들은 환영식에 앞서 묵념으로 법정 스님을 추모했다. 박선주 기자

용왕재 '현대'의 옷을 입다 환경생명을 위한 경기불자 대용왕재 봉행

경기지역 2000여 불자들이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용왕재를 봉행했다. 화성 오산시불교사암연합회, 조계종 2교구 용주사 및 신도회, 화성 신흥사, 오산불교거사회 등 수원·화성 지역 불교계는 3월 7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아시절 지상 계류장에서 '환경생명을 위한 경기불자 대용왕재'를 봉행했다. 수원·화성 지역 불교계가 경기 불자 조직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경기불자원제'는 환경 운동 및 지역 발전, 아이티 대지진 참사 구호 성금 전달, 그린스타트운동 등 용왕재의 현대적인 모델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인 '그린스타트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2010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의 안전개회와 성공을 기원했다. 1부 기원재 문화공연에 이어 2부 기원법회에는 환경보호 발원문 낭독, 용왕재(현공, 바라춤, 나비춤, 법고공연), 아이티구호 성금 전달 등이 진행됐다. 부대 행사로는 그린스타트 홍보자료 전시 및 홍보물 배포, 그린스타트 운동 서약, 아이티구호 성금 모이기 등도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는 아이티 구호 성금 500여 만원이 모였고 화성 신흥사에서 130여 만원을 지

원해 총 630여 만원이 모금됐다. 이날 경기지역불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녹색성장, 그린스타트를 말하면서 콘크리트 댐으로 4대강을 막으며 달려드는 개발업자들에게 연거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 달라"고 발원했다. 발원문을 낭독한 민학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신도회장은 "화성 용주사 일대 문화재지역에 호텔과 관광공원 조성, 오산 대각사 행복한이 주민센터의 활성화, 평택 수도사 사찰음식 교육을 통한 사찰음식의 대중화로 불자들의 수행환경을 지키고 불국정토를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불교계 대표로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화성 오산시 불교사암연합회 공동회장 신홍사 성일 스님, 태고종 총무원부원장 원광사 화경 스님, 삼막사 성무 스님, 보적사 인해 스님, 향덕사 수산 스님, 화운사 선도 스님, 일광사 송광 스님, 천보사 월성 스님, 연화사 지덕 스님, 민학기 수원 용주사 신도회장, 최형조 화성시 부시장, 유관진 살고싶은 오산시 21 실천협의회 회장, 이용선 경기도 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에는 부사 당한 야생 큰소쩍새, 말뚝가리, 매를 치료 방생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상연 기자

거리홍보 등 기증불씨 피워

생명나눔 장기기증 거리캠페인... 익명 노스님 1억원 기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늘어난 장기기증 희망자가 날로 감소하는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펼치는 2010년 거리캠페인이 다시금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생명나눔은 3월 10일 201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2010년 생명나눔은 △장기기증 안내소 설치 △장기기증 릴레이·거리 캠페인 △조계종 신도 등록과 연계한 장기기증 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생명나눔은 불자연예인 김혜옥 홍보대사 등과 함께 4월 중 대학가 등에서 대대적인 거리캠페인 내사하기로 했다.

일면 스님은 "2009년 10월 기준, 1만 2235명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뇌사 장기기증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으로 장기기증을 활발히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나눔의 노력과 더불어 불교계에서는 나눔을 통한 자비의 손길이 줄고 있다. 8일에는 익명을 요구한 노스님이 생명나눔에 1억원을 기부했다. 스님은 2000년 사신기증 서약을 하며 생명나눔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노스님은 "화자로 평생 모은 시주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하고 싶다. 생명나눔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일에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은 정복희 사무총장은 "아직 기금사용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뜻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자들의 성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0년 정기총회는 광주, 경남, 부산, 대구, 제주도 등 지역본부 활성화를 위한 법인정관 변경을 승인하고 2010년 예산으로 12억 2600만원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이사장 조호 스님(제척사 주지), 법륜 스님(해인문물장학회 이사), 보경 스님(법려사 주지), 경륜 스님(석불사 주지), 이수덕 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선주 기자

기도세레머니 자제, 개신교 반발 종교평화위 "시청자 종교자유 권리 침해"

불교계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 나타나는 기도세레머니 자제 요청에 개신교계가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 위원장 손안식)는 3월 4일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선수들의 종교행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냈다. 종평위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종교행위 개선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선수 개인의 종교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청하는 사람의 종교도 존중돼야 한다. 사전교육을 통해 기도세레머니 등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

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계방송에서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벌어졌던 해설위원의 특정 종교 편향적 발언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연회는 3월 9일 '스포츠 선수까지 관리하려는 불교계'라는 논평을 내고 종교편향 시정의 움직임을 정면 거부했다. 한국교회연회는 논평에서 "개나 다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따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는 느닷없이 해설위원의 발언을 문체 삼아, 사

과를 요청하는 등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제는 남아공 월드컵 선수들을 단속하라고 나서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개인의 신앙과 표현을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공인 신분에서의 다양한 계층과 종교를 무시하는 특정종교에 치우친 언행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평위는 "국가대표로서 종교적 표현의 자제가 필요하다. 개인의 종교자유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를 비롯한 타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19일까지 요청한 종평위 공문에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연 기자

"지원 체계 먼저 구축해야" 불교여성 다문화 봉사단 사례발표회

한국 생활에 낯선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해 도우미 활동을 펼쳐 온 불교계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봉사 경험을 공유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 산하 '불교여성 다문화 봉사단'은 3월 8일 조계사대하 2층 강의실에서 다문화가정코디네이터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1명의 다문화가정 코디네이터(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봉사할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소감을 나눴다. 코디네이터들은 다문화가정 돌기에 더 힘을 줄 것을 다짐했다. 박명자 코디네이터는 "봉사 교육을 받았지만 막상 가보니 모든 것이

새로웠다"며 "의사소통이 안 돼 처음에는 전화통화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꾸준한 한글교육으로 이제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문자를 보낸다"고 말했다. 노정인 코디네이터는 "도와줄 것은 많은데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불교여성 다문화 봉사단은 2010년 △다문화가정 초청 성지순례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시민인식개선 활동 △다문화가정 전문 봉사자 양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선주 기자



100자 뉴스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은 3월 8~12일 의성 고운사 선체림관에서 '신심명(信心銘)'을 강연했다. 이날 첫 강연에는 고운사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강설을 마음에 새겼다. 신심명은 선종의 3대 조사이신 승찬 스님(?~606년)이 지은 146구 584자 길이의 짧은 어록이다.

불교전문서점 불국사 '산사의 쉼터' 오픈

조계종 불교전문서점이 3월 1일 불국사(주지 성태) 경내에 새로운 직업서점 '산사의 쉼터'를 개설했다. 찻집과 북 카페 등을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사찰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대되는 '산사의 쉼터'는 현재 불교전문서점이 새로 도입한 최신 전산망을 통해 불교서적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BBS 개국 20주년 보살계 수계산림

BBS불교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아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4월 9~11일 진행되는 이번 보살계 수계법회는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이 전계사로 법회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불자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4월 9일 오후2시는 보살계 수계산림 기도일제, 4월 10일 오후2시는 율사 스님의 초청 기도법회가 진행되며, 4월 11일 오전 10시 보살계 수계산림 화향 대법회가 봉행된다. (02)705-5301

태고종 법륜승가대학 학인 57명 입학

태고종 종립 법륜승가대학(학장 보경)은 3월 8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법보전에서 입학식을 봉행했다. 초심사집, 사교, 대교과정 47명과 전법사 10명 등 57명의 학인스님들이 입학한 이날 입학식에는 총무원 3부원장 스님(청봉 스님, 법륜 스님, 화경 스님)과 실·부장스님을 포함한 중진 간부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해 축하를 전했다.

광진노인복지관 영화데이터케어센터 개소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3월 10일 중곡동에 '영화데이터케어(Day-Care)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주·야간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기 시작했다. 광진구립 영화데이터케어센터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9988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치매 걱정 없는 서울만들기'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이다.

불교상담개발원 불교상담대학 4기 입학식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담교)은 3월 8일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제4기 불교상담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불교상담대학은 불교이상심리, 사이버·전화상담 등 이론과 실무에 걸친 상담교육이 진행된다. 불교상담대학 학장 담교 스님은 "학장에서 공부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자"고 말했다. (02)737-7378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 38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0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CD 우송)
 -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서울 조계사 근처)
-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현 공 편(삼보통정,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 등)
 - ④ 개의식편(천도제,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 ⑤ 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등)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범음, 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한국 불교 법사 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신빌딩 3층) ☎ 02)733-1959, 720-1836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총무원 범음, 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정, 상단·중단관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음, 응호계(신중작법39위, 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송, 요집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중사이운, 중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입학자격** : 중단과 송·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 별도)
-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총무원 설립전
-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총무원에서 교부)
-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총무원 (경북 경산시 외촌면 동강 2리 265)
-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총무원 범음, 범패 교육원